

『黃帝內經素問吳注』에 관한 研究

金基郁 · 朴炫局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 · 醫史學教室

A Commentary study on Wu Kun(吳崑)'s  
『Huang Di Nei Jing (黃帝內經)』

Kim Ki-Wook, Park Hyun-Guk

Department of Medical Classics & History of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Abstract>

Below are the reports abstracted from the study of the life and a commentary study on Wu Kun(吳崑)'s Huang Di Nei Jing, which appears in the research of the main issue.

1. WuKun is one of the medical bachelors during the Ming(明) period. By researching on 『HuangDiNeiJing(黃帝內經)』 and many medical bachelors, he explained the scriptures, relating it with clinic. The study on the original text of 『NeiJing(內經)』 made the contents easily understandable by using the way of mobilizing concise sentences on the title, explaining each volume, and adding explanatory notes on the original text. And books written by WuKun have great value in literature. Through 『SuWenWuZhu(素問吳注)』, he adjusted and explained 『SuWen(素問)』 according to the context so that the readers could understand easily.

2. Below are five reports abstracted from WuKun's study of physiological, pathological, diagnosis, clinical application, acupuncture theories through 『NeiJing』

- 1) He explained the physiological appearance of the human body by the view of 'YinYangShengJiangChuRu(陰陽升降出入)' and linked it with clinic.
- 2) About the pathological appearance, he explained the function of 'ZhuangHuo(壯火)', 'ShaoHuo(少火)' and 'SanJiao(三焦)' pathologically. He also helped the practical use in clinic by explaining the pathological mechanism of 'PaiNiaoZhangAi(排尿障礙)' and 'JiuKe(久咳)'.
- 3) Among the diagnosis theories stated in 『NeiJing』, he easily explained the subject about 'MeiJin(脈診)'. Even with the symptoms such as asthma, he made it convenient to diagnose the 'ZuShi(虛實)' of the five internal organs and the state of the change of diseases.

- 4) He easily approached to the clinical application by concisely explaining the meaning of the treatment of 'WuXingShengKe(五行生克)', 'TianRenShangYing(天人相應)', 'SaiYinSaiYong(塞因塞用)', 'TongYinTongYong(通因通用)' presented by 『NeiJing』.
- 5) He explained thoroughly about 'JiuZhen(九鍼)' shown in 『NaiJing』 and strongly claimed it's practical use. He presented the theory of 'HouQi(候氣)', 'JianQi(見氣)', 'QuQi(取氣)', 'ZhiQi(置氣)', 'BuDeQi(不得氣)' and separately stated the method of acupuncture due to the climate and constitution along with the 148 treatments such as 'YingSuiBuXie(迎隨補瀉)', 'MuZiBuXie(母子補瀉)' etc. Also, by selecting the 'JiaoHuiXue(交會穴)' of 'QiJingBaMai(奇經八脈)', he presented the way of treating the disease of the twelve meridians(十二經脈) and 'QiJingBaMai'. WuKun claimed to 'ZhenYaoBingJhong(鍼藥并重)', and said that in the treatment of diseases, acupuncture and drug use are both essential and the main principle is the same. He claimed to combine in the use of both indeed because 'WuShuXue(五輸穴)' works identically with the theory of the treatment of the five internal organs(五臟治療) through 'WuWeiYunYong(五味運用)' of the drug, and since it's more efficient applying drugs for 'XuZheng(虛證)' and giving the acupuncture-moxibustion treatment(鍼灸治療) for 'ShiZheng(實證)'.

3. Among the teachings of the previous medical bachelors, WuKun attached importance to the theory of 『NeiJing』 WangBingZhu(王冰注), and LiuWanSu(劉完素), ZhangYuanSu(張元素), LiDongYuan(李東垣), ZhuDanXi(朱丹溪) of the JinYuan(金元) period. He used 'ZhuangShuiZhiZhu, YiZhiYangGuang(壯水之主, 以制陽光)' theory of WangBing(王冰) in order to treat the 'XiangHuoZhiQi(相火之氣)' used the theory of ZhangYuanSu to 'ZhiRe(治熱)' and found the way to treat 'SiShiWenBing(四時溫病)' through it. He also took advantage of LiDongYuan's 'PiWengShengJiang(脾胃升降)' theory to cure spleen-stomach disorders and followed the theory of 'YangChangYouYu(陽常有餘) YinChangBuZu(陰常不足)' of ZhuDanXi when treating 'QiZheng(氣證)' and 'LiuYuZheng(六鬱證)'.

As we can see above, the medical thoughts of WuKun(吳崑) deeply influenced Oriental Medicine, and deepened the theory in the field of the adding explanatory notes to books(經典註釋). We hope that a more profound research on WuKun in the future would continue on.

Key Word : Wu Kun(吳崑), 『SuWenWuZhu(素問吳注)』, YinYangShengJiangChuRu(陰陽升降出入), SanJiao(三焦), MeiJin(脈診), Clinical Application, JiuZhen(九鍼), QiZheng(氣證), LiuYuZheng(六鬱證).

## 1. 序論

『黃帝內經』(이하 『내경』 간칭함)은 동양의학

의 이론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수많은 醫家들의 핵심 연구대상이 되었다. 『내경』 연구는 전체적인 註釋과 校正, 『내경』을 분류하여 새롭게 編纂, 특정한 주제에 따른 註釋과 연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석방법에 있어서는 경전의 내용을 근거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기도 하고, 의가 자신의 시대적인 배경과 경험을 통하여 경전을 해석하기도 하였다.

한의학의 이론적인 발전은 『내경』의 해석을 통하여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연구 중에는 단순한 한의학 이론연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임상경험과 연계시킴으로써 실질적인 효용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醫家와 醫書로는 全元起的 『素問訓解』, 楊上善의 『黃帝內經太素』, 王冰의 『素問釋文』, 馬蒔의 『素問註證發微』와 『靈樞註證發微』, 吳崑의 『黃帝內經素問吳注』, 張介賓의 『類經』, 李仲梓의 『內經知要』, 張志聰의 『黃帝內經素問集注』와 『黃帝內經靈樞集注』, 汪昂의 『素問靈樞類纂約注』, 高世祚의 『素問直解』, 姚際恒의 『素問經注節解』 등이 있고, 오피 역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吳崑의 字는 山甫이고 號는 鶴阜山人이며, 安徽省 歙縣 사람이다. 吳氏는 岐黃之道の 깊은 뜻을 밝혔기에 사람들이 '參黃子'라 불렀다. 그는 15세 때 의학에 입문하고 집안 대대로 전해온 풍부한 의서인 『素問』, 『靈樞』, 『難經』, 『甲乙經』, 『脈經』, 『傷寒論』 등의 경전을 접하고 河間, 東垣, 丹溪 등 제가의 醫籍을 깊이 탐구하여 『내경』을 穿鑿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그는 '古人不得志於時, 多爲醫以濟世'한 풍조에 따라 儒學에서 醫學으로 전향하였고, 학문에 대한 열의가 왕성하여 이곳 저곳을 두루 다니며 배움을 청하였다. 謙虛하고 好學하는 品성을 지닌 吳氏는 풍부한 체험을 통하여 의학적인 시야를 넓히고, 또한 다른 유파의 의학경험과 秘傳을 흡수하였다. 그리고 經世致用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의학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임상적인 실제와 연계시켰다.

吳氏의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醫方考』6卷, 『脈語』2卷, 『素問吳注』24卷, 『鍼方六集』6卷 등이 있다. 저작의 특징으로 『의방고』는 고대의 方劑를 편집하고 정리한 것으로 경전과 스승의

가르침 혹은 자신의 경험으로 처방을 해설하였고, 『맥어』에서는 『내경』과 『難經』의 기초 아래에서 『婦人脈法』과 『脈象主病』에 대한 이론을 제기하였다. 또한 『소문오주』에서는 『소문』을 문맥에 맞게 수정, 해설하여 독자가 알기 쉽게 하였고, 『침방육집』에서는 역대 주요 침구문헌의 원문을 기재하고 주석을 가하였다.

吳氏에 관하여 국내의 연구가 거의 보고된 바가 없어<sup>1)</sup> 최근 중국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sup>2)</sup>, 논자는 吳崑의 『素問吳注』에 관하여 연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 II. 本論

### 1. 生涯와 『素問吳注』의 版本

#### 1) 生涯

吳崑(1552~1620年)의 字는 山甫이고 號는 鶴阜山人이며, 安徽省 歙縣 사람이다. 吳氏는 岐伯과 黃帝의 깊은 뜻을 밝혔기에 사람들이 그를 '參黃子'라 불렀다<sup>3)</sup>.

祖父인 吳正倫은 明代 隆慶에서 萬曆 사이의 名醫로 神宗인 朱翊鈞의 질병을 치료하였고, 穆宗 朱載의 貴妃의 질병을 고쳐 주어 朝野에 이름을 떨쳤다. 이후에 太醫의 猜忌를 받아 毒酒를 마시고 사망하였다. 伯父인 元昌과 父親인 文翰 두 사람은 은거하면서 덕을 닦았고, 집안에 장서가 풍부하여 『黃帝內經』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였다.

- 1) 尹鍾和 외1人 : 『鍼方六集·旁通集』을 爲主로 한 鍼과 藥의 理論의 相關性에 關한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1997年.
- 2) 王洪圖 외55人 :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出版社, 1994年. 郭君雙 : 『吳崑醫學學術思想研究』, 《吳崑醫學全書》中國中醫藥出版社, 1999年.
- 3) 裘沛然 외22人 : 『中國醫籍通考』 卷1,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年, p.79.

吳氏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六經을 익히고 儒學에 뜻을 두어 과거를 준비하였다. 집안의 영향으로 항상 의학에 관련된 서적을 열람하였고, 15세 때 의학에 입문하게 되었다. 『素問』, 『靈樞』, 『難經』, 『甲乙經』, 『脈經』, 『傷寒論』 등의 경전을 통독하고, 河間, 東垣, 丹溪 등 제가의 醫籍을 깊이 탐구하였다<sup>4)</sup>. 이는 훗날 그가 의술을 행하고 의서를 저작함에 있어서 좋은 기초가 되었다.

25세 때 과거 시험에 낙방하자, 鄉里의 어른이 “옛사람은 세상에 뜻을 얻지 못하면 대부분의 의학으로 세상을 구제하였다”<sup>5)</sup>는 권고를 듣고, 이를 계기로 岐黃之道에 전념하게 되었다. 余養正(牛亭)의 門下에서 의학을 배웠는데, 吳氏의 저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주로 임상에 따른 진단과 處方用藥의 秘訣을 전수 받았다고 하였다. 3년 후에 江浙, 湖北, 河南, 河北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有道者師事”<sup>6)</sup>하여 “72명의 스승”<sup>7)</sup>이 있었다고 하였다. 겸허하고 학문을 좋아한 품성은 吳氏의 체험을 풍부하게 하였고 의학적 시야를 넓혀 주었다. 다른 流派의 의학경험과 秘傳을 많이 수용하고, 교우관계도 넓었다.

33세 때 의학을 전수 받은 方元振, 汪跌德, 汪斌과 종손인 吳子湛과 함께 『醫方考』 여섯 권을 저술하였다. 이는 “世醫昧于上古經論 不達于中古之方”<sup>8)</sup>이라 하여 方義와 方証의 관계에 밝지 못하고, 약물의 升降浮沈이나 宣、通、補、瀉、輕、重、滑、澀、燥、濕의 법도 알지 못하면서 맹목적으로 처방에 집착하여 병을 치

료함으로써 그 危害性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古今 良醫들의 처방 700여 개를 선별하여 “揆之于經, 酌以正見, 訂之于証, 發其微義”<sup>9)</sup>하였다. 같은 해에 그가 독파한 脈經에 관한 의서의 요점을 발췌하여 語錄을 만들어 중점적으로 주석을 달고, 스승이 전수한 것에서 체득한 부분을 서술하여 『脈語』 2篇을 편찬하였다.

43세 때에 『素問』 全文을 주석하여 『素問吳注』(「自序」에는 『內經吳注』라 함) 24卷을 완성하였다. 이 책의 校正에 참가한 友人의 명단에 따라 추측하면, 그 당시 吳氏는 太醫院에서 『素問』을 가르쳤을 가능성이 있고, 정리에 참여한 사람은 太學生 8명, 太醫院 醫生 1명, 儒生 3명, 禮部 儒生 8명, 庠生 6명, 居士 1명 등 모두 21명이다<sup>10)</sup>. 이 책은 吳氏가 수업 중에 가르친 강의 원고로 여러 사람이 정리 수집하여 만들었을 것이다. 저술의 동기에 관하여 「自序」에서 “隋有全元起, 唐有王冰, 宋有林億, 嘗崛起而訓是經, 是庶幾昧爽之啓明哉, 待旦者較然觀矣. 獨其爲象, 小明則彰, 大明則隱, 謂之揭日月而行未也”라고 하고, 이에 “居常晷度有態, 日術其旨而討論之”하여 “不揣管陋, 釋以一得之言”<sup>11)</sup>하였다.

王冰의 24卷本을 底本으로 삼고 宋代 林億의 新校訂과 스승이 전수해 준 것을 참고하였으며, 文字의 音訓과 釋義에 대한 자신의 특기를 발휘하여 整理, 注釋하였다. 『素問』을 읽어 그 뜻이 통하도록 文意를 명백히 하고, 어려운 것을 쉽게 바꾸었다.

「서문」에 나타난 내용으로 추론하면 吳氏는 『내경』에 대해 일찍부터 연구를 하였는데, 이는 祖父가 『내경』 연구에 뛰어나 집안의 학문적인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病證의 機理와 方

4) 丹波元胤 : 『中國醫籍考』, 『亡名氏鶴阜山人傳』, 人民衛生出版社, 1983年, p.36.

5) 吳崑 著·郭君雙 主編 : 『脈語』, 「自序」, 《吳崑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年, p.175.  
“古人不得志於時, 多爲醫以濟世”

6) 上揭書 : 「自序」, p.175.

7) 吳崑 著·郭君雙 主編 : 『鍼方六集』, 「自序」, 《吳崑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年, p.435.

8) 吳崑 著·郭君雙 主編 : 『醫方考』, 「自序」, 《吳崑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年, p.6.

9) 上揭書 : 「自序」, p.6.

10) 吳崑 著·郭君雙 主編 : 『素問吳注』, 「校閱本書諸友名氏」, 《吳崑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年, p.203.

11) 吳崑 : 『黃帝內經素問』, 「自序」, 日本國吉村吉左衛門書林藏, 金泳出版社刊, 1980年, p.11~12.

藥의 注釋에 대하여 『의방고』에서 『내경』 연구에 관한 재능을 걸출하게 나타내었다. 임상 경험에 누적됨에 따라 학식은 날로 풍부해지게 되었고, 침에 대한 이전의 치료 경험으로는 『내경』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였으나 30년의 부단한 탐색을 통하여 비로소 미진함을 타파하게 되어 그의 의학 사상은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67세 때 生徒 23명(중손 吳象先을 포함하여)과 함께 침구 방면에서 자신이 연구하여 채득한 것을 歷代 經典論述 및 醫家歌賦와 결합하여 『鍼方六集』 6권을 저술하였다. 그 취지는 『圖經』(明代에 간행된 『銅人穴鍼灸圖經』)이 침구학 학습에서 이용되는 것을 돕기 위함이었다. 이 책을 편찬하기 전에 吳氏는 滑壽의 『明堂圖四幅』(또는 『正伏側人臟腑明堂圖』이라 함)을 교정하였다.

馬繼興의 고증에 의하면 이 圖는 明代 萬曆 6년(1578)에 重刊되었다<sup>12)</sup>. 이는 『銅人穴鍼灸圖經』이나 『鍼灸大成』의 銅人圖와는 다르며, 인체에 구체적으로 분포한 經絡 穴의 圖譜로, 침구학을 학습하는데 중요한 문헌이다. 따라서 이 책의 첫 권인 “神照集”에 수록하여 圖와 文이 모두 뛰어난 저술의 특징을 형성하게 되었다.

丹波元胤의 『中國醫籍考』 「亡名氏鶴阜山人傳」을 근거로 분석하면, 吳氏의 저술에 『十三科證治』, 『參黃論』, 『砭熨考』, 『藥纂』 등도 있었지만 애석하게도 지금은 볼 수가 없다<sup>13)</sup>. 출판되어 전해지는 의서에서 보면 이러한 의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의방고』에서 貝母、柴胡、杏仁、糯米、醇酒、橄欖、白曲、麥芽、山楂、淡豆豉、麝香、枳椇子、烏梅、香薷、雲母 등의 약물에 대해 고증한 것이나 方劑의 組成에 따른 藥理作用을 분석한 것에서 약물연구에 대한 吳氏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그의 저작에 『藥纂』이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의방고』에서 질병의 원인을 논

하고 傷寒、內科、外科(痔漏、癰瘍)、耳鼻咽喉科、眼科、婦人科、小兒科、痘疹、養生 등 임상各科의 범위를 언급하였는데, 醫生이 13科에 정통한 것은 明代에 醫生을 임용하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吳氏가 이러한 의서를 저술한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침방육집』은 針灸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논한 것으로 그가 의학적인 관점을 종합하여 微針의 오묘함을 인식한 독창적인 면이 확실히 있다. 『砭熨考』의 내용이 『침방육집』을 저작할 때 스며들어간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니다<sup>14)</sup>.

이밖에 吳氏는 일생 동안 독서에 열중하였는데, 正史、野史、筆記小說、易學、數術、運氣學 등 여러 분야에 두루 통하여 거시적인 각도에서 의학 현상을 관찰하였다. 『易經』의 水火 既濟과 九六陰陽으로 『내경』의 陰陽을 해석하였고, 『尙論』으로 五行의 근원을 해석하였고, 『史記』, 『北齊書』, 『魏志』, 『南唐史』, 『太平御覽』, 『泊宅編』, 『遁齋問覽』, 『內則』 등 野史에 나오는 의약 내용과 『醫說』, 『醫餘』 등에서 病案과 의약을 논한 것을 기록하여 『의방고』에 수록함으로써 문장의 雅趣를 더하였다.

## 2) 『素問吳注』의 版本

『聯目』에 의하면 『素問吳注』 24卷(『自序』에는 『內經吳注』라 되어 있음)의 현존하는 판본으로는 14종이 있다<sup>15)</sup>. 그 가운데 明代에 간행된 것으로는 萬曆37年(1609) 石室刻本、萬曆刻本、明刻本 3종이 있다.

清代에 간행된 것은 다음과 같은 7종이 있는데, 즉 正學齋刻本、光緒 25年 程梁刻本(189

12) 馬繼興: 『中醫文獻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年, pp.302~305.

13) 前掲書: 『中國醫籍考』 「亡名氏鶴阜山人傳」, p.36.

14) 前掲書: 『鍼方六集』 「自序」,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年, p.435.

“崑自束發修儒, 游心靈素, 諸砭熨鍼經, 皆時討究…… 時以所授鍼方, 對證施治, 種種神驗”

15) 薛清泉 외53인: 『全國中醫圖書聯合目錄』, 中醫古籍出版社, 1991年, pp.16~17.

9)、宏道堂本、隆文堂本、大興堂本、巴川儒興助記刻本、清刻本과 抄本 1종이 있다.

또한 日本 刻本에는 元祿 6年(1693)本과 寶永 3年(1706)本 2종이 있다.

고찰한 소견으로는 『소문오주』의 판본이 많지만 서로의 차이는 크지 않다. 清代 刊本은 明代 여러 간본의 특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 책의 초기 刊本 계통은 아래와 같은 2가지가 있다.

(1) 萬曆 37年 石室本

이 본에는 吳序와 張元裕의 서문이 있다. 목록에 빠진 부분이 있고, 교정에 참가한 사람의 명단도 빠져 있다. 吳氏의 책이 완성된 이후(1594)에 간행되지 못하고 단지 歙縣에서만 유전되다가 특히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중시되었다. 따라서 萬曆 己酉年(1609)에 張元裕가 「서문」을 쓰고 간행됨으로써 『素問』 공부하는 후학들의 “迷醒之疾”을 깨끗하게 씻어 주었다. 「自序」와 「張序」, 그리고 책머리에 “內經吳注”라 되어있는 것 등의 특징에 근거하면, 萬曆 37년 刻本으로 감정한 것과 부합한다. 萬曆 刻本은 이러한 계통에 속하고 형식이 같지만 「張序」가 빠져 있다.

(2) 光緒 20年 程梁本

이는 萬曆 原版本을 重版한 것으로 石室本 계통과는 다른 점이 많다. 그러나 목록과 교열한 사람들의 명단이 온전하여 明代의 다른 판본 계통인 것으로 추측된다.

## 2. 『黃帝內經』에 관한 研究

吳氏는 경전을 注釋하고 詮釋함에 있어, 경문의 큰 뜻에 위배됨이 없도록 전체하고, 반드시 이론과 실재를 연관시킴으로써 경전 이론을 실제 임상에서 체현하였다. 또한 『내경』의 脈學、鍼灸、證治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그의 견해를 나타내었다. 특히 病證의 治法、用藥과 鍼灸理論、治療를 연구하고 토론했는데, 이는 모두 『내경』 이론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러

한 노력은 『내경』 이론을 임상적인 실천으로 이끌어 낸 것으로 후세 사람들의 학문 연구에 본보기가 되었다. 그가 저술한 『內經素問吳注』는 그 뜻이 간명하고 발전적으로 해석한 것이 비교적 많아 『내경』의 연구에 있어 중요한 저작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관하여 清代·汪昂은 “吳注間有關發，補前注所未備”<sup>16)</sup>라 평가하였다. 『내경』 연구에 대한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다.

### 1) 『黃帝內經』 原文에 對한 研究

『素問』은 楊上善、全元起、王冰이 注釋한 이후 宋代 林億 등이 校注하였다. 이 이후 여러 사람들도 『내경』에 대해 연구하였으나, 현재 그들의 저작이 전해지지는 않는다. 吳氏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林億 등이 注解한 것이 『소문』의 숨은 뜻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음을 실감하고, 이에 분발하여 『소문』을 注釋하여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는 『소문오주』의 「自序」에서 “隋有全元起，唐有王冰，宋有林億，嘗崛起而訓是經，庶幾昧爽之啓明哉，待旦者較然覩矣。獨其爲象，小明則彰，大明則隱，謂之揭日月而行未也。不肖束髮修儒，無何徙業，居常晷度有態，日求其旨而討論之，不揣管陋，釋以一得之言，署名曰『內經吳注』”<sup>17)</sup>라 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그가 여러 해에 걸쳐 『소문』을 연구한 성과이며, 前人의 注解를 참고하여 완성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吳氏는 『소문오주』에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학술사상을 전개하였다.

#### (1) 經文解釋에 對한 原則

그는 經文을 해석할 때 간결한 언어로 경문의 요지를 闡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① 『素問』의 命名에 對한 解釋

『素問』의 命名에 대해서는 역대 의가들의 견해가 분분하였는데, 그 중에 林億이 『重廣補註黃

16) 前揭書：『中國醫籍通考』卷1, p.81.

17) 前揭書：『黃帝內經素問』「序」, p.11.

帝內經素問·新校正』에서 “素者, 本也. 問者, 黃帝問岐伯也. 方陳性情之源, 五行之本, 故曰素問”<sup>18)</sup>이라고 한 해석에 대해 吳氏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五內陰陽謂之內, 萬世宗法謂之經, 平日講求謂之素問”<sup>19)</sup>이라 하였다. 이처럼 吳氏의 注解는 간명하고 이해하기 쉬워 독자에게 일목요연하게 하였다.

### ② 『素問』各篇에 對한 註解

吳氏는 篇名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밝히고, 전인들이 누락한 부분을 보충시켰다. 이를테면 『素問·宣明五氣篇』의 解題에 있어 “宣, 發也. 五氣, 木火土金水也. 言五氣有入, 有病, 有并, 有惡, 有液, 有禁, 有發, 有亂, 有邪, 有藏, 有主, 有傷, 有應, 是篇皆發明之”<sup>20)</sup>라 하여, 五行學說의 이론과 인체 五臟之氣의 관계 및 이것이 生理、病理 등에 상호 관계하는 것을 천명한 것이 ‘선명오기편’의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篇名에 대한 주석은 독자에게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全篇의 정신을 파악하는데 유리하게 하였다.

### ③ 『素問』原文에 對한 簡明한 註釋

吳氏는 『소문』 원문의 주석에 대해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하여 文理가 통하게 하였다. 예를 들면 『上古天真論』에 나오는 眞人の 養生方法에 대한 주석에 있어, 林億의 주해가 비록 玄妙하지만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여, 그는 “眞人者, 不假修爲, 天真全俱, 天地陰陽, 惟其闔闢握持, 若默運于其間也”<sup>21)</sup>라 하였다. 즉 眞人은 天地陰陽에 순응하며 신체를 保養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그 含意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2) 經文修訂에 對한 原則

『素問吳注』에서는 全文을 모두 주석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醫理의 闡述을 중시하는 것을 전

제로 文理를 순조롭게 밝히고 注文을 簡明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吳注는 『素問』 24卷本에 대해 100여 곳의 글자를 고쳤다. 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원문을 수정하였다.

#### ① 文意에 根據하여 고침

卷11 「卒痛論篇」에서 “岐伯再拜稽首對曰”을 “岐伯曰”이라 고쳐 이 편의 첫머리 “黃帝問曰”과 서로 대응시켰는데 원래 문자에 해인이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sup>22)</sup>. 그리고 卷19 「五運行大論」의 “病生之變”의 경우 “病之生變”으로 고쳐<sup>23)</sup>, 당시 사용한 어법에 적합하게 하였다.

#### ② 醫學理論에 根據하여 고침

卷22 「至眞要大論」의 “(岐伯)不治五味屬也”를 “不味王, 味屬也”로 고쳤다<sup>24)</sup>. 그 이유를 “以五味治其主, 謂之味王, 五味各入其所屬, 謂之味屬.”<sup>25)</sup>이라 하였는데 앞 구절에서 “黃帝問, 不治王而然者何也”<sup>26)</sup>라 한 것과 상응한다.

#### ③ 『新校正』에 根據하여 고침

卷20 「氣交變大論」의 원문인 “甚則復大脛腫, 喘咳, 寢汗出, 憎風”<sup>27)</sup>의 구절 뒤에 吳氏는 “藏氣盛, 長氣失政”<sup>28)</sup>의 일곱 글자를 補入하였는데, 『新校正』에서 “今獨亡者, 闕文也”<sup>29)</sup>라 한 것에 근거하였다.

#### ④ 『太素』에 根據하여 고침

卷23 「示從容論」의 원문인 “子別試通”을 “子別誠通”으로 고쳤는데<sup>30)</sup>, 『太素』 卷16의 「脈論」에서 “子試別通”을 근거한 것이다<sup>31)</sup>.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吳氏의 주석은 객관적인 근거를 통하여 刪改、增補하였지, 함부로 고

22) 上揭書：『卒痛論篇』, p.332.

23) 上揭書：『五運行大論』, p.545.

24) 上揭書：『至眞要大論』, p.784.

25) 上揭書：『至眞要大論』, p.784.

26) 上揭書：『至眞要大論』, p.784.

27) 上揭書：『氣交變大論』, p.571.

28) 上揭書：『氣交變大論』, p.571.

29) 前揭書：『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 卷20, p.4.

30) 前揭書：『黃帝內經素問』 「示從容論」, p.792.

31) 楊上善 著·王洪圖 외1人 点校：『黃帝內經太素』,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年, p.524.

18) 顧從德 重雕版：『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 卷1, 國立中國醫藥研究所出版, 民國49年, p.6.

19) 前揭書：『黃帝內經素問』 「上古天真論」, p.1.

20) 上揭書：『宣明五氣論』, p.226.

21) 上揭書：『上古天真論』, p.8.

치지 않았다.

## 2) 『黃帝內經』理論에 對한 研究

### (1) 『素問』의 生理 理論에 對한 認識

吳氏는 『소문』을 주석할 때 생리, 병리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많이 친발하였다.

「陰陽應象大論」의 “清陽出上竅，濁陰出下竅”、“陰陽反作，病之逆從也.”에 대해 “清氣在上，濁氣在下，則陰陽得位，無災害也. …… 反作，倒置也，逆從，不順也.”，“清陽爲天，獨陰爲地，地氣上爲雲，天氣下爲雨”라 주석하고<sup>32)</sup>，천지음양의 승강에 따라 雲雨가 형성되는 이치로 인체 장부 공능의 실질을 천명하였다. 즉 그는 “以人喻之，飲入於胃，水溢精氣，上輸於脾，脾氣散精，上歸於肺，上焦開發，若霧露焉，是地氣上爲雲也. 肺行降下之令，通調水道，下輸膀胱，水精四布，是天氣下爲雨. 膀胱者州都之官，津液藏焉，氣化則能出，是雨出地氣也. 上焦如霧，其氤氳者，心肺和而呵出之，是雲出天氣也”<sup>33)</sup>라고 명확하게 지적하였다. 吳氏는 臟腑陰陽이 升降하면서 협조하는 生理功能을 陰陽升降으로 설명함으로써 生理功能에 더욱 적합하게 표현하였다.

「六微旨大論」의 “出入廢則神機化滅，升降息則氣立孤危”、“升降出入，無器不有”에 대해 吳氏는 “根於中者，命曰神機，凡血氣之屬皆是也”<sup>34)</sup>라 하고，“血氣之屬，廢其出呼入吸，則神機化滅矣. 委形者，皆形之類，息其升降上下，則氣立孤危矣”<sup>35)</sup>라 주석하였다. 吳氏는 사람은 血과 形이 있는 무리라는 관점을 이용하여 ‘小便不通’의 病機를 해석하였는데 “溲溺不通，期朝不通，便令人嘔，名曰關格”<sup>36)</sup>，“非小疾，可成死證”<sup>37)</sup>이라 하

고, 그 원인은 인체에서 升降出入하는 神機의 病變으로 “膀胱者，州都之官，津液藏焉，氣化則能出矣. 然化氣之道，莫妙于升降”<sup>38)</sup>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병은 ‘倒換散’<sup>39)</sup>으로 內熱火鬱을 치료한다. 荊芥로 升陽하고 大黃으로 降陰하여 清陽이 上竅로 나가게 되면 濁陰은 下竅로 통하여 소변이 따라서 나가게 된다. 炒鹽으로 배꼽에 熨法을 시행하는 것은 배꼽이 人身의 樞機로 “有生之系”<sup>40)</sup>이기 때문에 능히 理氣化滯하게 된다.

### (2) 『素問』의 病理·病機·病位에 對한 認識

#### ① 病理의 闡發

#### ㉠ 壯火、少火

「陰陽應象大論」에서 “壯火之氣衰，少火之氣壯，壯火食氣，氣食少火，壯火散氣，少火生氣”라 하였는데, 吳氏는 “火之壯者，壯已必衰，火之少者，少已必壯. 壯少衰盛，若循環焉”이라 주석하여 壯火와 少火의 興亡盛衰가 고리처럼 끊임없이 순환하는 이치를 나타내었다. 또한 “氣生壯火，故壯火食氣，少火滋氣，故氣食少火”라 하여 氣와 壯火、少火의 關係를 나타내고, 결국 “氣得壯火則耗散，以少火益氣，故氣得少火則生長”<sup>41)</sup>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衝和之氣를 중시하여 보존하고 지키게 하고, 과다한 소모를 피할 것을 권고하였다.

#### ㉡ 三焦

「靈蘭秘典論」의 “三焦者，決瀆之官，水道出焉”에 대한 주석은 임상에서 나타나는 病變과 결합하여 三焦의 기능을 설명하였는데, “決，開也. 瀆，水道也. 上焦不治，水溢高原. 中焦不治，水停中脘. 下焦不治，水畜膀胱，故三焦氣治，則爲開決溝瀆之官，水道無泛濫停蓄之患矣”<sup>42)</sup>라 하였다. 이는 병리를 上、中、下 三焦로 나누어 그 공

32) 前揭書：『黃帝內經素問』「陰陽應象大論」，p.40.  
33) 上揭書：『陰陽應象大論』，p.41.  
34) 上揭書：『六微旨大論』，p.561.  
35) 上揭書：『六微旨大論』，p.562.  
36) 前揭書：『醫方考』「小便不通門」，p.103.  
37) 上揭書：『小便不通門』，p.103.

38) 上揭書：『小便不通門』，p.103.  
39) 上揭書：『小便不通門』，p.103.  
40) 上揭書：『小便不通門』，p.103.  
41) 上揭書：『陰陽應象大論』，p.43.  
42) 上揭書：『靈蘭秘典論』，p.81.

능을 천명함으로써 공허하지 않고 또한 임상실천에 지도적인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의방고』에서 ‘三補丸’으로 三焦에 화가 있어 대소변이秘澁하고 咽乾한 증상을 치료하였다. 이러한 증상은 “壯火食氣也. 故少火宜升, 壯火宜降. 今以三物(黃連、黃芩、黃栢)降其三焦之壯火, 則氣得其生, 血得其養, 而三焦皆受益矣, 故曰三補”<sup>43)</sup>라 하여 三焦와 壯火、少火와의 관계를 약물과 연계시켰다.

### ② 病機의 闡發

#### ① “諸厥固泄, 皆屬於下”

『至眞要大論』의 “諸厥固泄, 皆屬於下”에 대하여 吳氏는 “固, 禁固澁便不通也. 泄, 澁便泄出不禁也. 下謂腎也, 腎居五藏下, 兼水火之司, 水曰陰精, 火曰命門, 陰精衰, 則火獨治而有熱厥, 命門衰, 則水獨治而有寒厥”<sup>44)</sup>이라 주석하였고, “腎主開竅于二陰, 腎家水衰火實則爲固, 火衰水實則爲泄.”<sup>45)</sup>이라 하여 陰精과 命門을 對峙시켜 固、泄의 병기를 설명하였다. 『의방고』에서는 ‘八味丸’으로 腎間의 水火가 모두 허하여 소변이 不調한 것을 主治하였다. 方解에서 “腎具水火, 主二便, 而司開合. 腎間之水竭, 則火獨治, 能合不能開, 令人病小便不出. 腎間之火熄, 則水獨治, 能開不能合, 令人小便不禁”<sup>46)</sup>이라 하였다. 이 처방은 桂枝、附子로 火를 돕고 熟地黃、山茱萸로 補水한다. 火가 實하면 牡丹皮、澤瀉의 酸鹹味로 收瀉하고, 水가 實하면 茯苓、山藥으로 淡滲한다. 결국 水火 既濟하여 소변의 開合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 ㉔ 久咳

久咳 病機에 관하여 「咳論」의 “此皆聚於胃, 關於肺”가 久咳가 낫지 않는 주요 병기로 보고 “三焦火衰不足以生胃土也. 胃土既虛, 則三焦虛邪皆聚於胃, 所謂萬物歸乎土也. 肺爲藏府之華蓋, 諸藏府有病, 無不薰蒸之, 所謂肺朝百脈也, 故曰關於

肺, 言關繫於肺也. 胃虛則土不能制五液, 故令多涕唾, 肺衰則金不能施降下, 故令浮腫氣逆也”<sup>47)</sup>한다고 보았다. 吳氏는 肺胃失調가 久咳의 주요 병기로 確定하였는데, 後代 慢性咳嗽 치료에 肺胃를 따라 치료하는데 이론적 기초를 닦았다.

#### ③ 病位의 闡發

「終始」篇에는 “手屈而不伸者, 其病在筋, 伸而不屈者, 其病在骨”이라 하였다. 『의방고』에서 腎氣虛弱과 腰膝作痛, 屈伸不便者를 치료하는 ‘獨活寄生湯’에서, 吳氏는 「중시」편을 인용하여 筋骨에 모두 병이 들었을 때 腰痛과 膝痛의 病位를 筋과 骨로 確定하고, 病因은 腎虛가 根本이고 肝、脾(脾主四肢)가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았다. 처방 가운데 秦艽、防風、獨活、寄生 등 甘辛溫한 약물이 ‘升舉肝脾之氣’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肝脾의 氣가 升하면 腰膝의 痛증이 없어지고, 또한 當歸、熟地、牛膝、杜仲 등의 약물로 ‘滋補肝腎之陰’하면 ‘足得血而能步’한다고 하였다<sup>48)</sup>.

#### (3) 『素問』의 診斷 理論에 對한 認識

##### ① 脈診

『五藏別論』에서 脈診에 寸口를 取한 부위를 논술하여 “五臟六腑之氣味, 皆出於胃, 薰蒸於肺, 肺得諸藏府之氣, 轉輸于經, 故變見於寸口”<sup>49)</sup>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관점은 바로 肺가 精氣를 布散하고 臟腑를 營養하는 기능이 있으며, 氣口는 또한 肺脈이 지나가는 곳이므로 氣口의 맥을 살핍으로써 臟腑氣血의 성쇠를 진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설명은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五臟生成篇」에서 五臟生死脈의 切診과 관련하여 ‘先建其母’라 한 것에 대하여 그는 “始, 得病之原也. 建, 立也. 母, 應時胃氣也. 如春脈微弦, 夏脈微鉤, 長夏脈微芤, 秋脈微毛, 冬脈微石, 謂之中和而有胃氣. 土爲萬物之母, 故謂之母也. 若弦甚, 則知其病始于肝. 鉤甚,

43) 前揭書：『醫方考』「火門」, p.41.

44) 前揭書：『黃帝內經素問』「至眞要大論」, p.774.

45) 上揭書：『至眞要大論』, p.774.

46) 前揭書：『醫方考』「小便不禁門」, p.104.

47) 前揭書：『黃帝內經素問』「欬論」, p.329.

48) 上揭書：『腰痛門』, p.129.

49) 前揭書：『黃帝內經素問』「五藏別論」, p.109.

則知其病始于心. 熒甚, 則知其病始于脾. 毛甚, 則知其病始于肺. 石甚, 則知其病始于腎. 故曰: 欲知其始, 先建其母<sup>50)</sup>라 하였다. 吳氏의 이러한 주석은 다른 注家가 ‘母’를 ‘應時王氣’, ‘病因’, ‘病本’, ‘五臟相乘之氣’ 등의 견해로 본 것에 비해 알기 쉬울 뿐만 아니라 疾病의 발생과 胃氣와 의 근본 관계로 파악하여 임상 실천에 부합하기도 한다.

#### ② 喘息의 診斷

『陰陽應象大論』의 “視喘息, 聽音聲, 而知所苦”에 대하여 五臟의 陰陽虛實로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 辨別하였다. 그는 “喘粗氣熱爲有餘. 喘急氣寒爲不足. 息高者心肺有餘. 吸弱者肝腎不足. 聲大而緩者爲宮, 苦病脾. 聲輕而勁者爲商, 苦病肺. 聲調而直者爲角, 苦病肝. 聲和而美者爲徵, 苦病心. 聲沈而深者爲羽, 苦病腎<sup>51)</sup>”이라 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독자들에게 오장의 허실과 그 병변의 소재를 진단하는데 더욱 편리하도록 하였다.

#### (4) 『素問』의 治則 運用에 對한 認識

##### ① 五行生克 原理의 適用

『五運行大論』의 “寒暑燥濕風火, 在人合之奈何?”에 대해 吳氏는 인체 장부의 생克 관계를 근거로 장부를 조절하는 이론을 결합시켜 “治肝治心, 過則平以西方金令”, “治心生脾, 過則平以北方水令”, “治脾補肺, 過則平以東方木令”, “治肺補腎, 過則平以南方火令”, “治腎補肝, 過則平以中央土令<sup>52)</sup>”하였다. 臟腑辨證을 통하여 장부에 대해 平、抑、治、保、生、補하는 치료 원칙을 채용하였다. 이는 오랜 임상 경험을 종합한 것으로 임상적인 가치가 있다.

##### ② 天人相應 原理의 適用

『六元正紀大論』의 “用熱遠熱, 用溫遠溫, 用寒遠寒, 用涼遠涼, 食宜同法, 此其道也, 有假者反之”에 관하여, 吳氏는 “言用藥物之寒者, 須遠歲氣之寒. 用藥物之涼者, 須遠歲氣之涼. 溫熱亦然.

食宜同法者, 食, 謂飲食, 宜, 則兼居處衣服而言, 其寒涼溫熱, 皆當遠天歲氣也. …… 所謂時不可違也<sup>53)</sup>라 주석하였다. 用藥할 때에는 天時와 결합하고 환자가起居하는 특징을 분석한 연후에 辨證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켰다. 질병이 생긴 근원을 天時를 위배한 것에서 찾았다. 『의방고』에서 ‘冷香飲子’로 霍亂을 주치하였다. 吳氏는 환자가 여름에 찬 것을 먹고 寒에 傷하여 ‘壅塞至陰’한 경우에는 더운 여름철이라도 辛溫한 草果나 身熱한 附子를 채용하여 ‘散沉寒’하였다<sup>54)</sup>. 그러나 이 약은 “必冷服者, 假其冷以從治<sup>55)</sup>”라 하였는데, 이는 ‘有假者反之’의 의미이다. 熱藥을 冷服하는 것은 天時를 위배하지 않는 것이다.

##### ③ 塞因塞用, 通因通用 原理의 適用

『至眞要大論』에는 “塞因塞用, 通因通用”이라 하였는데, 吳氏는 이 법칙을 운용하여 ‘六君子湯’으로 脾虛臌脹、瀉瀉을 치료하는 원리를 해석했다. 그는 “脾病則三陰之氣不行, 故令鼓脹. 瀉泄者, 土弱不能制濕也”하기 때문에 “經曰: 塞因塞用. 故用補劑以治脹滿, 初服則脹, 久服則通<sup>56)</sup>”이라 하였다. 또한 ‘桃仁承氣湯’으로 痢疾 초기에 체질이 강한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sup>57)</sup>에 대하여 『내경』의 ‘通因通用’ 법칙으로 “用大黃、芒硝之鹹寒, 以蕩滌邪熱, 用桃仁之苦以逐敗血, 甘草之甘以調氣<sup>58)</sup>”한다고 方解를 하였다.

##### (5) 『黃帝內經』의 鍼灸에 對한 研究

吳氏는 『내경』의 침구 이론을 정밀히 연구하고 임상 실제에 운용하여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그가 저술한 『침방육집』은 그의 연구를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그는 이 책의 ‘自序’에서 “崑自束發修儒, 游心靈素, 諸砭熅鍼經, 皆時討究 …… 時以所授鍼方, 對證施治, 種種神驗<sup>59)</sup>”하였다고

53) 前揭書: 『素問吳注』「六元正紀大論」, p.379.

54) 前揭書: 『醫方考』「霍亂門」, p.54.

55) 上揭書: 『霍亂門』, p.54.

56) 上揭書: 『鼓脹門』, p.102.

57) 上揭書: 『痢疾門』, p.48.

58) 上揭書: 『痢疾門』, p.48.

59) 前揭書: 『鍼方六集』「自序」, p.435.

50) 上揭書: 『五藏生成篇』, p.101.

51) 上揭書: 『陰陽應象大論』, p.59.

52) 上揭書: 『五運行大論』, pp.541~545.

하였다. 이는 바로 『내경』 침구에 대한 연구에 평생을 바친 데 기인하며, 그는 『내경』의 침구 이론에 관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九鍼의 응용과 鍼刺得氣、鍼治療原則、鍼藥并重 등의 방면에서 『내경』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 ① 九鍼에 對한 發揮

吳氏는 『靈樞』 「九鍼十二原」에서 언급된 九鍼의 형태와 적응증을 기초로, 九鍼의 임상 응용을 발전시켰다. 그는 『鍼方六集』 「尊經集」에서 鑱鍼은 淺刺에 이용하고, 邪熱을 瀉하는 작용이 있어 頭身의 熱性疾患을 주치한다. 員鍼은 鍼鋒이 卵과 같이 둥글어 分肉之間을 按摩하여 邪氣를 없애므로 分肉之間의 병증에 이용한다. 鍤鍼은 鍼尖이 둥글면서 약간 예리하여 피부에 刺入하지 않고, 鍼頭로 經脈을 안마하여 經絡을 소통시켜 正氣를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으므로, 經脈에 병이 있으면서 氣虛를 겸한 경우에 이용한다. 鋒鍼은 刺絡하여 瘡출시키니, 熱邪를 없애는 작용이 있어 熱毒癰疽이나 經絡에 久痺 등의 고질병이 있을 경우에 이용한다. 鈹鍼은 피부의 환부를 찢어 절제하여 排膿할 수 있으니, 癰疽가 化膿한 질환에 쓴다. 員利鍼은 ‘癰腫暴痺’를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毫鍼은 ‘正氣固之, 冷邪具往’의 작용이 있어, 邪氣가 絡脈에 정류하여 생기는 痺痛에 이용한다. 長鍼은 ‘虛風內舍于骨解腰脊節膜之間’한 것을 능히 제거하여 邪氣가 深重한 痺証에 이용한다. 大鍼은 水氣가 關節에 停留하여 浮腫이 생기는 질환에 응용한다. 吳氏는 九鍼의 응용을 중시하여 “九鍼主治, 『靈樞』之訓也. 用之各盡其妙, 古今何異焉”<sup>60)</sup>이라 하였다. 따라서 九鍼의 응용 가치가 광범하고 치료 효과가 뚜렷함을 강조하고, 『내경』의 침법을 發揚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 ② 鍼灸方法의 發揮

吳氏는 『내경』의 靜志候氣、因時因人、調治陰陽、補瀉寒熱 등 刺鍼의 큰 원칙 아래 이론을 더욱 충실히 발휘시켜 ‘候氣’、‘見氣’、‘

取氣’、‘置氣’、‘不得氣’、迎隨補瀉、母子補瀉 등 148법<sup>61)</sup>을 제시하였다. 먼저 자침에 있어 반드시 候氣할 것을 강조하여 『침방육집』에서 “謹候氣之所在而刺之, 是謂逢時. 病在陽分者, 必候其氣加在于陽分乃刺也. 病在陰分者, 必候其氣加在于陰分乃刺之”<sup>62)</sup>하라고 하였다.

刺針할 때에는 病氣가 陰分 혹은 陽分에 있는 時機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곧 候氣의 관건이다. 候氣하여 자침하기 위해서는 見氣、取氣、置氣의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즉 見氣는 “左手見氣來至, 乃內鍼. 鍼入, 見氣盡, 乃出鍼”<sup>63)</sup>하는 것이고, 取氣는 “當補之時, 從衛取氣”<sup>64)</sup>하는 것이며, 置氣는 “當瀉之時, 從營置氣”<sup>65)</sup>하는 것이다. 동시에 定氣之法에도 주의하여 “乘車來的, 臥而休之如食頃, 乃刺之. 步行而來, 座而休之如行十里頃, 乃刺之. 大驚大恐, 必定其氣, 乃刺之”<sup>66)</sup>라 하여, 乘車나 步行 뿐만 아니라 驚恐한 경우에도 반드시 마음이 평온하고 氣가 化평해지기를 기다려 자침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形體 氣血의 盛衰와 神氣의 상황에 따라 鍼刺補瀉法을 결정하였다. 자침하고 나서 得氣를 하였으면 마땅히 그 得氣感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이른바 ‘守形’、‘守神’、‘守機’<sup>67)</sup>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得氣하지 못하면 “十死不治”<sup>68)</sup>라 하여 후인들에게 경계시켰다. ‘靜志候氣’하는 『내경』 침구 학설에 관한 그의 이론적인 발휘가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因時因人’의 鍼法에 있어서 吳氏는 『靈樞·寒熱病』의 “春取絡脈, 夏取分膜, 秋取氣口, 冬取經輸”에 근거하여 “春刺井者, 邪在肝. 夏刺榮者, 邪

61) 上掲書：『尊經集』, p.503.

62) 上掲書：『尊經集』, p.503.

63) 上掲書：『尊經集·見氣』, p.503.

64) 上掲書：『尊經集·取氣』, p.503.

65) 上掲書：『尊經集·置氣』, p.503.

66) 上掲書：『尊經集·定氣』, p.503.

67) 上掲書：『尊經集』, p.503.

68) 上掲書：『尊經集』, p.506.

60) 上掲書：『尊經集』, p.502.

在心. 季夏刺者, 邪在脾. 秋刺經者, 邪在肺. 冬刺合者, 邪在腎”<sup>69)</sup>이라 하였다. 계절에 따라 서로 다른 혈위에 자침하여 오장질환을 치료하는데, 그의 이론을 『내경』에 비해 상세하면서 실용적이다. 체질에 따라서 자침의 深淺、穴位の多少、留鍼時間 등을 다르게 운용할 것을 강조하여 『침방육집』에서 “皮厚色黑者, 深而留之, 多益其數. 皮薄色少者, 淺而疾出其鍼”<sup>70)</sup>이라 하였다.

‘調治陽淺’하고 ‘先陽後陰’해야 한다고 주장한 그는 『침방육집』에서 “病痛者陰也, 痛而以手按之不得者陰也, 深刺之. 病在上者陽也, 痒者陽也, 淺刺之”라 하고, “病先起于陽後入于陰者, 先取其陽, 後取其陰. 必審其氣之浮沈而取之”<sup>71)</sup>할 것을 요구하였다. 調治陰陽하는 법칙에 따라 病位가 陰分이나 陽分에 있는지를 살펴 자침의 先後、深淺、取穴多少를 결정하는 것은 임상 응용에 일정한 가치가 있다.

또한 吳氏는 補瀉方法에 있어서 『내경』의 迎隨補瀉와 徐疾補瀉를 기초하여 ‘動伸推內補瀉’法과 ‘母子補瀉’法을 창안하였다. 『침방육집』에서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 “動而伸之是謂瀉, 推而內之是謂補”<sup>72)</sup>라 하였다.

그는 구체적인 자침 방법에 대해 독창적으로 발전시켰는데 『침방육집』에서 “先須循攝孔穴, 以左手大指爪甲, 按而重切之, 次以右手食指彈二三十下, 令穴間赤起, 經所謂彈而怒之是也. 次令咳嗽一聲, 以口內溫鍼隨咳而下, 徐徐捻入, 初至皮膚, 名曰天才. 少停進鍼, 刺至肉分, 名曰人才. 又停進鍼, 刺至筋骨之間, 名曰地才. 就當捻轉, 再停良久, 退鍼至人才之分, 待氣沈緊, 倒鍼朝病, 進退往來, 疾徐左右, 因病而施”<sup>73)</sup>라 하였다. 이처럼 吳氏의 補瀉法은 구체적인 手技法으로 일관하고 있고, 그 상세함과 침을 시술하는 정밀성은 오늘날에

도 의의가 있다.

### ③ 鍼藥并重에 對한 研究

吳氏는 『내경』의 자침이론에 대해 깊이 연구함과 동시에, 약물 치료와 침술 요법을 서로 비교하여 ‘침과 약을 함께 증시하는 것(鍼藥并重)’이 질병을 치료하는 중요한 방법임을 인식하였다. 『침방육집』에서 「鍼藥無二致一」、 「鍼藥短長」、 「鍼藥猶兵」、 「鍼藥勿過」<sup>74)</sup> 등 45가지에 달하는 이론을 펼쳐 『내경』의 자침 이론과 임상 응용의 가치에 대하여 밝혀 『내경』의 침구 학설을 발전시켰다.

먼저 침과 약물은 질병을 치료하는 원리가 같다고 하였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약물의 氣味厚薄、陰陽屬性、升降作用과 五味所喜에 대한 논술을 근거하여, 鍼刺에도 “有浮、有沈、有疾、有徐、有動、有靜、有進、有退, 有刺皮、刺脈、刺肉、刺筋、刺骨之殊. 取井、取榮、取輸、取經、取合之異. 鍼藥二途, 理無二致”<sup>75)</sup>라 하였다.

鍼刺法에 있어 서로 다른 手技法을 구사하는 것은 약물의 음양 승강과 비슷한 효과에 발휘하며, 井榮輸經에 따른 혈위로 오장 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약물에서 酸苦甘辛鹹에 따라 오장 질환을 치료하는 기전과 일치한다고 하였다.

침과 약물의 장단점과 배합 응용에 관하여 “有窮年積歲, 飲藥無功者, 一遇鍼家施治, 危者立安, 臥者立起, 跛者立行, 是藥之多, 不如鍼之寡也. 然, 鍼不難瀉實, 而難補虛. 一遇疝羸, 非飲之甘藥不可, 是鍼之補, 不如藥之長也. 上工以神良自期, 必兩者通明而時出之, 始爲全技”<sup>76)</sup>라 하였다. 침은 응급 상황이나 肢體의 운동장애에 있어 약물보다 효과가 우수하고, 약물은 허약한 몸을 보익하는 효과가 우수하므로 침과 약물을 배합하여 함께 사용하는 것이 良醫이라고 하였다.

또한 用藥의 大小方과 用鍼의 法度에 이르면

69) 上揭書：「尊經集」, p.508.

70) 上揭書：「尊經集」, p.507.

71) 上揭書：「尊經集」, p.504.

72) 上揭書：「尊經集」, p.504.

73) 上揭書：「旁通集·裁賦下鍼法」, p.525.

74) 上揭書：「旁通集」, pp.518~519.

75) 上揭書：「旁通集」, p.518.

76) 上揭書：「旁通集」, p.518.

두 가지가 서로 같다고 하여 “藥有小方不足以祛病，故立重方……鍼有特刺，不足以祛病，故主群刺”<sup>77)</sup>라 하였다. 이는 하나의 혈을 선택하여 單刺로 질병을 치료하지 못할 경우, 여러 개의 혈을 동시에 자침하는 群刺를 선택하는 것이 곧 약물 치료에 있어 重方の 작용과 같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鍼有盡法而病方去者，盡法可也。有小施鍼法而病即已者，不必盡法可也。蓋藥之過劑，鍼之過法，皆足以損人也”<sup>78)</sup>라 하여, 用鍼의 법도는 用藥의 원칙과 같아 盡劑、盡法과 不必盡劑、不必盡法이 다름을 구분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다음 吳氏는 經脈病證의 치료에 있어 『영추』의 十二經脈과 奇經八脈 主病을 기초로 經氣가 相通하는 상호관계를 귀납시켜 치료에 있어 鍼藥方法을 총괄하여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督脈·足太陽膀胱經·陽蹻脈과 手太陽小腸經의 병증에 대해, 後谿·申脈 두 혈을 자침하여 상하의 陽氣를 交通시켜 치료하고, 또한 麻黃湯, 桂枝湯, 葛根湯, 小青龍湯 등을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79)</sup>.

帶脈·足少陽膽經·陽維脈과 手少陽三焦經의 病證에 대해서도 臨泣·外關의 두 혈을 자침하여 經氣를 조화시키고 表裏를 풀게 하고, 三化散, 雙解散, 大小柴胡湯, 通聖散, 溫膽湯 등의 처방을 배합할 것을 주장하였다<sup>80)</sup>.

衝脈·足太陰脾經·陰維脈·足陽明胃經과 手厥陰心包經의 病證의 경우에는 公孫·內關 두 혈을 자침하여 經氣를 通利시키고 三焦를 相通하게 하고, 瀉心湯, 涼膈散, 大小陷胸湯, 調胃承氣湯 등을 배합하여 치료할 것을 주장하였다<sup>81)</sup>.

任脈·手太陰肺經·陰蹻脈과 足少陰腎經의 病證은 列缺·照海 두 혈을 자침하여 네 경락의 氣血을 통하게 하고, 아울러 三黃瀉心湯, 二母

寧嗽湯, 犀角地黃湯, 薄荷柑桔湯 등을 배합하여 치료할 것을 주장하였다<sup>82)</sup>.

이상은 奇經八脈의 交會穴을 선택하여 十二經脈과 奇經八脈의 病證을 치료하는 것으로, 기경 팔맥이 심이경맥의 기혈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는 것에 근거하여 經脈의 氣血을 和暢하게 하고 扶正祛邪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는 吳氏가 『내경』의 침구 이론을 발전시킨 것 가운데 비교적 큰 부분을 차지한다.

### 3. 歷代 醫家들의 長點을 受用

吳氏의 저작에는 역대 의가들의 의서를 인용한 것이 적지 않다. 이를테면 仲景의 『傷寒論』, 葛洪의 『肘後方』, 孫思邈의 『千金方』, 許叔微의 『本事方』, 王翬의 『百一』 등의 治驗病案이나 方藥을 실었다. 그는 『內經』 王冰注와 金元四大家인 劉完素, 張元素, 李東垣, 朱丹溪 등의 이론을 매우 중시하였다. 前人의 학술을 발양하여 그의 학설이나 전인의 숨은 뜻을 이끌어 내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는 의학에 대한 그의 풍부한 학식을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태도가 겸허하고 객관적이며 전인의 장점을 수용하는 기풍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 1) 王冰 注의 運用

『의방고』에서 ‘六味地黃丸加黃柏知母’方을 腎勞로 인하여 등을 굽히고 펴기 어렵고, 小便이 잘 나오지 않고 깨끗하게 끊기지 않고, 囊濕生瘡, 小腹裏急, 便黃赤者를 치료하는데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 病機를 “骨髓日枯矣, 故背難俯仰”, “腎氣怯, 則欲便而不利, 既便而有餘瀝”, “腎者水臟, 傳化失宜, 則水氣留之”하여 囊濕하고 瘡이 생긴다고 하였다. 또한 小腹裏急者는 “眞水枯

77) 上掲書：『旁通集』, p.519.

78) 上掲書：『旁通集』, p.519.

79) 上掲書：『旁通集·揆八法』, p.523~524.

80) 上掲書：『旁通集·揆八法』, p.524.

81) 上掲書：『旁通集·揆八法』, p.524.

82) 上掲書：『旁通集·揆八法』, pp.524~525.

而眞火無制，命門相火無所畏，故膀胱小腹之筋膜裏急”<sup>83)</sup>한다고 하였다. 이 처방은 甘淡한 味로 滲濕하고, 鹹寒으로 潤下去熱하고, 苦潤한 味로 滋陰하여 相火之氣를 濟火함으로써 龍雷의 相火를 굴복시킨다. 이는 “王冰曰：壯水之主，以制陽光”<sup>84)</sup>에서 뜻을 취한 것으로, 이러한 원리로 大補丸을 응용하는 이치를 해석하였다.

『鍼方六集·尊經集』의 “熱病五十九刺”는 『素問·水熱穴論』에서 적록한 것으로 원문에는 59穴의 구체적인 穴位가 밝혀져 있지 않아 王冰注에서 補入하였다. 吳氏가 여기에서 발췌한 문장은 모두 ‘소문’ 王冰注에서 腧穴에 관한 전문을 수록하였다.

## 2) 金元醫家の學說 運用

### (1) 劉完素

『의방고』에는 劉氏의 火熱論을 수용하였다. 예를 들면 ‘防風通聖散’의 方解에서 “風熱壅盛，表裏三焦皆實者，此方主之”라 하여 防風、麻黃은 모두 解表하는 藥물로 “風熱之在皮膚者，得之由汗而泄”하는 효능이 있고, 荊芥、薄荷는 上焦의 熱을 清하는 藥물로 “風熱之在顛頂者，得之由鼻而泄”하고, 大黃、芒硝는 “風熱之在腸胃者，得之由后而泄”하고, 滑石、梔子是 “風熱之在決瀆者，得之由溺而泄”하고, 石膏、桔梗으로 “清肺胃也”하고, 連翹、黃芩은 “祛諸經之遊火”하고, 川芎、當歸、芍藥은 “和肝血”하고, 甘草、白朮은 “和胃氣而健脾”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吳氏는 “劉守眞氏長于治火，此方之旨，詳且悉哉.”라 하였다<sup>85)</sup>.

吳氏는 白痢의 病機에 대해서도 劉氏가 주장한 ‘開發群蒙’을 따랐다. 『의방고』에는 ‘溫六丸’이

白痢를 치료한다고 하였는데, 이 처방에 대해 吳氏는 “白痢爲寒，中世之謬論也。劉守眞氏出，始以白痢責之熱傷氣，可謂開發群蒙.”이라 方解하였다. 이 처방 가운데 滑石은 “寒則除六腑之熱，淡則能利六腑之濕”하고, 甘草은 “天地衝和之氣”를 얻어 六腑의 氣를 고르게 조절하고, 乾薑은 “得天地正義之氣”하여 人氣가 濕을 피하고 또한 佐使로 쓰인다고 하였다<sup>86)</sup>.

### (2) 張元素

『의방고』의 ‘溫疫門’에서 ‘九味羌活湯’으로 四時의 不正之氣에 感受되어 病이 된 것을 치료하였다. 吳氏는 이 처방에 대해 “藥之爲性，辛者得天地之金氣，于人則爲義，故能匡正黜邪。薑、防、蒼、細、芎、芷，皆辛物也，分經而主治……而防風者，又諸藥之卒徒也.”라 方解하였고, 易水老人의 自序를 인용하여 “此方冬可以治寒，夏可以治熱，春可以治溫，秋可以治濕”이라 하였다. 四時의 溫疫에 이 처방이 가장 무난하지만, 吳氏는 “陰虛氣弱之人，在所禁”<sup>87)</sup>이라고도 하였다.

### (3) 李東垣

東垣의 ‘脾胃升降’學說은 吳氏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의방고』에서 東垣의 升降方劑와 補益方劑 10여 개를 뽑고 『소문』의 升降理論과 결합시켜 전문적으로 ‘脾胃門’을 두고 그의 학설을 천착하였다. 이를테면 ‘補中益氣湯’은 飢困勞倦과 中氣虛弱을 주치한다. 이 처방에 대하여 “復用升麻、柴胡者，升清陽之氣于地道也，蓋天地之氣一升，則萬物皆生，天地之氣一降，則萬物皆死。觀乎天地之升降，而用升麻、柴胡之意從可知矣.”라 方解하고, 이어서 그는 “東垣以脾胃爲肺之母故耳，余以脾胃爲衆體之母，凡五臟六腑百骸九竅，莫不受其氣而母之，是發東垣之未發，而廣其意耳”<sup>88)</sup>라고 闡發하였다. 吳氏는 이러한 증상을 『鍼方六集·旁通集』에 인신하여 藥물의 이론으로 침구의 이치에 비유하였다.

83) 上掲書：「虛損勞瘵門」, p.64~65.

84) 前掲書：『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卷22「至眞要大論」, p.30.

85) 前掲書：『醫方考』「中風門」, p.13.

86) 上掲書：「痢門」, p.49.

87) 上掲書：「溫疫門」, p.35.

88) 上掲書：「脾胃門」, p.89.

이밖에 이동원의 제자인 羅太無는 ‘谷氣通於脾’한다는 『내경』의 이론을 이용하여 山嵐瘴氣와 水土不服吐瀉을 치료하였다. 吳氏는 이러한 학설을 또한 『소문오주』에서 운용하였다.

#### (4) 朱丹溪

朱氏는 內科雜病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특히 ‘氣證’의 연구에 뛰어났고, ‘陽常有餘, 陰常不足’ 이론에 입각하여 ‘虎潛丸’(一名 補陰丸)<sup>89</sup>90), ‘大補丸’<sup>91</sup>92)93)94)95) 등을 창제하였는데, 『의방고』에서 吳氏는 가장 널리 인용하였다. 氣證과 六鬱의 證治에 대해 ‘越鞠丸’으로 모든 鬱證의 通治方으로 삼았다. 方義는 香附子는 氣鬱을 풀고, 蒼朮은 濕鬱을 열고 川芎은 血鬱을 조절하고, 梔子는 火鬱을 다스리고, 神曲은 食鬱을 치료한다고 하였다<sup>96</sup>).

결론적으로 鬱證에 대한 用藥은 理氣가 위주이다. 임상에서 鬱證에 痰과 熱을 겸하면 가감 변화시키고, 時令을 결합하여 가감 변화시켜 처방을 완벽하게 하였다. 吳氏는 『내경』의 五鬱治法과 결합하여 ‘鹽湯’으로 吐法을 시행하여 木鬱을 다스리고, ‘火鬱湯’으로 火鬱을, ‘大承氣湯’으로 土鬱을, ‘麻黃葛根湯’으로 金鬱을, ‘大補丸’으로 水鬱을<sup>97</sup>) 치료함으로써 六鬱의 治療 方劑를 풍부하게 하였다.

물론 朱丹溪가 東垣의 藥物證治에만 관심을 가지고 鍼法을 放棄한데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는데 『침방육집』에서 鍼과 藥物을 併用을 강조할 때 이에 대해 異議를 제기하였다.

#### (5) 스승의 影響

그의 스승인 余午亭(일설에는 余滌)은 후대에

“新安余氏醫家之開山祖”라 불려졌다<sup>98</sup>99). 저서로는 『諸證析疑』 四卷이 있으며<sup>100</sup>) 여기에 內科、婦人科 등各科에 따른 66證과 처방 875首가 수록되어 있다. 吳氏는 그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는데 ‘推法’의 구체적인 응용에 관하여 『맥어』에서 스승의 말을 인용하여 “若人三部平等, 脈形端直, 毋用此法, 脈來一部獨斜, 如內如外. 一部獨勁, 直前直後”<sup>101</sup>)라하고 이것이 그 비결이라 하였다.

『의방고』에서 瘡疾에 관하여 스승의 말을 인용하여 “無痰不作瘡”<sup>102</sup>)이라고 하였는데, 경험한 것이 간명하고 病機가 바로 들어맞아 吳氏는 스승의 학설을 수용하였다. 또한 失血이 과다한 경우에 “師云：失血太多, 氣息幾微之際, 則四物禁勿與之, 所以然者, 四物皆陰, 陰者天地閉塞之令, 非所以生萬物者也.”<sup>103</sup>)라 하여 四物湯을 투여하는 것을 금하였다.

### III. 結 論

論者는 본문을 통하여 『黃帝內經素問』吳注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吳氏의 『내경』 원문에 관한 연구는 간결한 문장과 『소문』의 명칭, 편명에 대한 해설, 원문의 주석을 다는 방법을 사용하여, 『내경』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素問吳注』는 『素問』의 文意와 理論、 『太素』와 『新校正』 등에 근거한 수정 원칙을 세워, 독자에게 알기

89) 上揭書：『虛勞癆瘵門』, pp.68~69.

90) 上揭書：『七疝門』, p.130.

91) 上揭書：『秘結門』, p.52.

92) 上揭書：『血證門』, p.79.

93) 上揭書：『鬱門』, p.95.

94) 上揭書：『淋瀝門』, pp.105~106.

95) 上揭書：『厥證門』, p.114.

96) 上揭書：『鬱門』, p.94.

97) 上揭書：『鬱門』, p.95.

98) 前揭書：『脈語』, 『自序』, p.175.

“……乃取邑中午亭余老師而養正焉, 居三年, 與師論疾……”

99) 前揭書：『中國醫籍通考』, 卷1, p.2980.

“……爲海內所稱者, 鶴阜吳崑氏, 蓋午亭先生之門人也……”

100) 上揭書：pp.2979~2980.

101) 前揭書：『脈語』, 『上達篇』, p.189.

102) 前揭書：『醫方考』, 『瘡門』, p.47.

103) 上揭書：『血證門』, p.76.

쉽게 수정함이 그 문헌적인 가치를 들 수 있다.

2. 吳氏의 생리, 병리, 진단, 치료원칙, 침구 등에 관한 『내경』 이론의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경』에 기재된 인체의 생리현상을 '陰陽升降出入'의 관점으로 해설하고 臨床과도 결부시켰다.

둘째. 병리현상에 대해서 '壯火와 少火의 기능' 및 '三焦의 기능'을 병리적으로 밝혔고, 또한 '排尿障礙'와 '久咳'의 병리기전을 설명함으로써 임상활용에 도움을 주었다.

셋째. 『내경』에 기재된 진단이론 중 '脈診'에 관한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였고, 천식과 같은 증상에 대해서도 五臟의 虛實과 病變의 所在를 진단하는데 편리하도록 하였다.

넷째. 『내경』에서 제시한 '五行生克'、'天人相應'、'塞因塞用'、'通因通用'의 치료원칙의 의미를 간명하게 해설함으로써 임상적인 응용에 쉽게 접근하였다.

다섯째. 침구방면에 있어 『내경』에서 제시한 九鍼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며, 그 효용성에 대하여 매우 강조하였다. 그는 '候氣'、'見氣'、'取氣'、'置氣'、'不得氣'의 학설을 제시하고, '迎隨補瀉'、'母子補瀉' 등 148종의 치법과 함께 계절 및 체질에 따른 刺鍼方法을 따로 논술하였다. 또한 奇經八脈의 交會穴을 선택하여 十二經脈과 奇經八脈의 病證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鍼藥并重'을 주장하여 질병 치료에 있어서 자침과 약물복용이 모두 중요하며, 두 가지 방법의 치료 원리가 동일하다고 하였다. 吳氏는 五輸穴의 운용이 약물의 五味運用을 통한 五臟治療와 원리가 같으며, 또한 虛證에는 약물치료를 實證에는 鍼灸治療가 효과적이기에 兩者를 配合하여 응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3. 吳氏는 歷代 醫家들의 장점을 수용하였고, 특히 『內經』 王冰 注와 金元의 劉完素、張元

素、李東垣、朱丹溪 등의 이론을 중시하였다. 그는 王冰의 '壯水之主, 以制陽光'說을 이용하여 '相火之氣'를 濟火하는 방법을 찾았고, 劉完素의 이론을 이용하여 '治熱'의 방법을 찾았으며, 張元素를 통하여 '四時溫病'의 치법을 찾았다. 또한 李東垣의 '脾胃升降學說'을 이용하여 비위질환을 치료하였고, 朱丹溪의 '陽常有餘, 陰常不足'이론과 '氣證'에 관한 이론을 본받아 '氣證'과 '六鬱證'의 증치에 활용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吳崑의 의학 사상은 동양 의학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한의학의 '經典註釋' 방면에 관한 전문적인 이론을 심화시켰기에 앞으로 더욱 깊은 吳崑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IV. 參考文獻

1. 顧從德 重雕版：『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 國立中國醫藥研究所出版, 民國49年.
2. 楊上善 著·王洪圖 외1人 点校：『黃帝內經太素』,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年.
3. 吳崑 著：『黃帝內經素問』, 日本國吉村吉左衛門書林藏, 金泳出版社刊, 1980年.
4. 吳崑 著·郭君雙 主編：『素問吳注』《吳崑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年.
5. 王洪圖 외55人：『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出版社, 1994年.
6. 丹波元胤：『中國醫籍考』, 人民衛生出版社, 1983年.
7. 裘沛然 외22人：『中國醫籍通考』,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年.
8. 馬繼興：『中醫文獻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年.
9. 薛清泉 외53人：『全國中醫圖書聯合目錄』, 中醫古籍出版社, 1991年.
10. 吳崑 著·郭君雙 主編：『醫方考』《吳崑醫學

- 全書》，中國中醫藥出版社，1999年.
11. 吳崑 著·郭君雙 主編：『脈語』《吳崑醫學全書》，中國中醫藥出版社，1999年.
  12. 吳崑 著·郭君雙 主編：『鍼方六集』《吳崑醫學全書》，中國中醫藥出版社，1999年.
  13. 郭君雙：「吳崑醫學學術思想研究」《吳崑醫學全書》，中國中醫藥出版社，1999年.
  14. 尹鍾和 외1人：『鍼方六集·旁通集』을 爲主로 한 鍼과 藥의 理論的 相關性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1997年.

